



마리아의 전교자 프란치스코 수녀회
Franciscan Missionaries of Mary

나눔

희망을 지피는

2023. 가을(Autumn)



초대합니다

저희 수녀회는 2023년 11월 1일부터
지구(Region)체제로 새롭게 개편하게 됩니다.
이제 한국 관구는 타이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홍콩-마카오 관구들과 함께
삼위일체 지구(Region)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국 설립 초기부터 관구 폐막의 여정까지
사랑으로 이끌어주신 하느님과 모든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감사 미사를 봉헌하고자 합니다.

마리아의 전교자 프란치스코 수녀회
관구장 이선영 데레사 드림



일시 : 10월 9일 월 오전 11시 감사 미사 (주례 : Fr. 김찬선 ofm)

12:30 점심 식사

13:00 피조물의 작은 찬미

- 사진 전시회,
- 이로사리아 수녀의 서각,
- 노테레사 수녀의 봉헌초,
- 정스텔라, 김젼마 수녀의 매듭 목주,
- 고아네스 수녀의 짜투리천 활용한 가방 장식,
- 길 떠나는 마리아 타일 판매

(피조물의 찬미전에서 발생하는 수익 일체는 어려운 해외 선교지로 보낼 예정입니다.)

오실 분들은 9월 15일까지 문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10-2821-8174

마리아의 전교자 프란치스코 수녀회
한국 관구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문준희 헬레나 수녀

한국에는 아주 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으리라 여깁니다.

저는 22년째 해외 선교사의 삶을 살고 있고, 여러분들의 물질 영적 후원으로 에티오피아에서 병원 사목을 하고 있는 문 준희 헬레나 수녀입니다.

35년된 낡은 의원을 허물고, 마을 사람들의 반대와 어려움을 무릎쓰며, 올해 3월 9일 추기경님과 많은 지인들을 모시고 모자병원 개원식이 있었습니다.

새 병원을 지어 놓았지만, 여러가지로 갖추어야 할 것들이 많지만,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직원들의 유니폼과 병원 침대 시트 등을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은 보통 도심지와 저희 지역주민들이 이용을 합니다. 분만실과 수술실 가까이에 위치한 신생아 중환자실은 응급 사례를 위해 항상 대기하고 있어야 합니다. 미숙아 사례들은 거의 몇 달을 신생아 중환자실 인큐베이터에서 집중 간호를 받습니다. 어느정도 회복이 되면 켈거루 마더 케어를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아기 피부와 엄마의 피부를 접촉해서 아기들이 엄마의 심장박동을 듣고 안정을 취하고, 체온을 유지하고, 몸무게가 아주 빨리 늘어나 회복을 촉진시키는 방법입니다. 저희 지역 임산부들은 도심지 임산부들과 달리 교육과 영양이 부족해서 미숙아 사례들이 많고 기형아 사례들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불러 주신 대로 아픈 이들을 간호할 수 있는 선물을 저에게 주시어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에 늘 감사드립니다.



아기 울음 소리가 들려서 다시 일터로 가봐야겠습니다. 여러분의 너그럽고 후한 나눔이 많은 연약한 아기들의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김영선 보나. FMM 영적가족 10기

오늘 저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새겨 보고자 합니다. 이 구절은 80대이신 제 모친의 좌우명이며 저희 자식들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조금이라도 줄 수 있으려면 적어도 나의 필요가 어느 정도 충족돼 있어야 할 겁니다. 본인이 절박한 상태에 처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을 테니까요. 제가 생각하는 나눔에는, 적어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다소의 여분이 있음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물질일 수도 있고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나눠 줄 물질이 있으려면 부지런히 일하거나 아주 절약해서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바오로 사도 역시 도둑질하는 대신 부지런히 일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것이 있으라고 권고하셨습니다.

사실 물질의 소유 정도는 상대적인 것이라 실제로 많고 적음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사람의 심리 상태를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의 근무지에서 겪은 한 가지 일화를 소개하지요. 저는 한국방송대학교의 한 지역대학에서 근로 장학생으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학생회 사무실에서 학우들을 위해 학사업무를 보조하는 일을 합니다. 다른 사무실에 근무하는 동료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강남권에 사시는 어느 학우님은 학생회 사무실에 올 때마다 그곳에 있는 봉지 커피를 5개씩 가져가신답니다. 내방하시는 학우들을 위해 과 학생회비로 비치해 두는 것인데, 한잔 정도 마시고 가면 되는데 굳이 뜯지 않은 것을 본인 주머니에 넣어 가시는 겁니다. 형편이 어려운 것도 아닌데 자기 돈으로 사지 않은 것을 거저 가져가고 싶은 심리에는 오래된 결핍감이 내재 돼 있기 때문일 수 있지요.

제가 생각하는 나눔은 의지의 문제이지 가진 것이 많고 적음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본당의 시니어 아카데미(노인대학)에서 봉사하면서 나름 인생을 살 만큼 살아오신 어르신들에게서 듣는 말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는 좀 바보처럼 살았어. 친척들에게 많이 퍼줬지. 근데 지금은 내 형편이 제일 나아.” 이 무슨 모순된 논리인가요! 내 곳간의 양식을 꼼꼼 묶어두어야 쌓여 있지, 필요한 사람들에게 퍼 줬는데 어떻게 다른 집보다 더 여유롭다는 말인가요?

다소 이색적인 저의 경험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2월 초, 대만의 타이베이에 있는 어느 호텔에서 3일 밤을 묶은 적이 있습니다. 체크아웃 하는 날, 침대 곁에 약간의 타이완 달러를 룸 서비스료로 두고 나왔습니다. 공항에서 탑승 전에 시간이 남아 당일 쓴 비용을 결산하는데 호텔 룸 서비스료로 놓고 온 정도의 돈이 남은 겁니다. 아무리 계산해도 남아서는 안 될 금액인데 말이죠. 아직도 의아한 일이지만, 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하느님께는 공짜가 없구나 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내 것을 나눠주려는 생각이 사람의 마음을 좀 넉넉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는 마음은 결핍감이나 기대감, 섭섭한 감정에서도 벗어나게 해주기도 하지요. 혹여 이런 마음이 우리 삶에서 실제로 약간의 물질적 여유를 만들어 주는 게 아닐까요? 살면서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찾아보면 우리에게는 언제나 나눌 것이 있습니다. 길 가다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잠시 손을 빌려주는 것일 수도 있고, 전철 안에서 지쳐 보이는 이에게 앉은 자리를 내주는 것일 수도 있지요, 도움이 필요한 이들과 생각과 마음으로 기도로 함께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저의 삶 안에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는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루카복음서의 말씀으로 이 글을 마무리합니다. ”남에게 주어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다. 말에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후하게 담아서 너희에게 안겨주실 것이다. 너희가 남에게 되어 주는 분량만큼 너희도 받을 것이다.” (루카 6,38)

예수님을 가진 자가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성 다블뤼 안토니오 주교-

조수정 수산나



지구 역사상 가장 더운 날을 두 번 기록한 칠월의 첫 주, 무더위 형제와 함께 유기서원자 연모임 도보순례가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동안 베이스캠프가 되어줄 홍산 성당 순례자의 집에 짐을 풀고 첫 번째 목적지로 부지런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구불구불 길을 따라 걷고 또 걸어 샅티 성지에 도착하였습니다. 호젓하게 서있는 나무로 닦인 십자가 뒤로 이곳이 박해를 피해 교우들이 숨어서 신앙생활을 했던 곳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듯 첩첩 산중이 보입니다. 이어서 이전에는 계곡이었던 곳을 따라 더 깊이 걸어 들어가 막다른 곳에 이르니 도양골 성지 비석이 보입니다. 초라해 보이기까지 하는 돌로 만든 십자가와 탁덕 최양업 시성 기원비가 다인 조출한 곳이지만, 과거 이곳은 ‘길 위의 사제’라 불리는 최양업 신부님이 조선에 들어와 6개월 동안 한시도 쉬지 않고 20만 Km 를 걸으며 사목활동을 하다가 처음 휴식을 취하며 첫 사목 보고서를 작성한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도양골과 샅티골에서 살던 신자들은 병인박해 때 체포되어 모두 순교하였다고 합니다.



부슬부슬 비가 떨어지는 가운데 **둘째 날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출발지점인 서짓골은 갈매못에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신부님들과 형제들의 처형을 숨어서 울며 지켜보던 교우들이 목숨을 걸고 해로와 육로로 12일에 걸쳐 시신들을 모셔와 이장하였던 곳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반대로 걸어 갈매못 성지로 향하였습니다. 넓은 바다 앞에 순교자들의 넋을 기리는 듯 조성되어 있는 고즈넉한 갈매못 성지가 보입니다. 이곳이 다블뤼 안 안토니오 주교, 오메트르 오 베드로 신부, 위앵 민 마르티노 루카 신부, 황석두 루카, 장주기 요셉 외에 500여명의 무명 순교자들이 처형된 곳이라는 말에 마음이 먹먹해지며 그분들을 위해 기도드렸습니다.



서짓골 성지



갈매못 성지



새터 성지



줄무덤 성지



홍주 성지

세 번째 날은 최양업 신부님과 최경환 성인의 탄생지인 새터 성지를 들린 후 무명 순교자들의 무덤이 자리하고 있는 다락골 성지로 향하였습니다. 전날 말로만 들었던 이름 없는 순교자들의 무수히 많은 무덤들을 직접 목도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순교자들의 넋을 기리며 함께 성가를 불러드렸는데, 노래를 부르는 순간 죽음의 순간까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세상을 떠났겠지만 천국에서 환하게 웃고 있을 성인들의 모습을 그려지며 작은 기쁨이 느껴졌습니다. 이어서 걸음을 재촉하여 도착한 곳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도합 천여 명의 순교자가 탄생한 곳인 홍주 성지입니다. 시내 한 복판에 잘 조성된 목사의 동헌, 교수형 터(감옥), 홍주진영, 저잣거리, 참수 터, 생매장터, 등 심문과 고문, 죽음의 형장까지 순교자들의 목숨을 건 순교 신앙의 길을 따라가며 묵상하면서 그분들의 애환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매우 더운 날이 예상되는 **네 번째 날**은 새벽에 길을 나섰습니다. 아침 미사를 드린 한국의 첫 번째 김대건 신부님을 기리는 솔피 성지는 청년 김대건의 얼이 깃들어 있는 듯 참으로 푸르고 아름다웠습니다. 푸른 하늘아래 드넓게 펼쳐진 산과 들을 지나 걷다보니 초록 들판 가운데 우뚝 서있는 신리성지가 보입니다. 지금은 평야 한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는 신리는 조선시대에는 밀물 때 배가 드나들던 곳으로 천주교회의 중요한 거점 지역 이였고 박해 때에 이곳 모든 신자들이 순교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신리가 과거 많은 교우들과 사제들의 신앙의 터전이었음을 잘 조성된 다블뤼 주교 생가, 순교자 기념 순교 미술관과 경당들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솔피 성지



신리 성지

일주일이 언제 지나나 싶었지만 벌써 시간이 지나 맞이한 순례 **다섯째 날**은 과거 죽음의 길로 악명 높던 순교자들의 압송로인 한티고개를 오르며 시작하였습니다. 지금은 잘 닦이고 정비된 길이지만 이미 매질과 핏박으로 성하지 않은 몸을 끌고 걸었을 순교자들에게는 한걸음 한걸음이 고통의 길이였음을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순교자들의 고난의 길을 따라 걸으며 도달한 해미성지는 참혹한 박해의 흔적을 생생히 느낄 수 있는 곳 이였습니다. 순례의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만큼 박해의 잔인함은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 처참한 고통 속에서도 하느님을 증거하고 찬양하는 신앙이 더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순례가 끝나는가 싶었는데 순례의 마지막 날 필연과 같은 우연으로 성거산성지 줄무덤 앞에서 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히 이날 미사 집전 신부님의 초대로 창립 어머니 마리드라 빠시옹, 복녀 마리 아순다, 7성녀를 함께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순교자들의 넋을 위로하듯, 일주일간의 우리의 여정을 축복하고 감싸 안듯, FMM 카리스마 안에서 쇄신을 초대받듯 한 감사한 미사로 우리의 은혜로운 순례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6박 7일간 조금은 집중적으로 이어진 도보순례는 차로 편하게 하는 순례와는 분명 다른 특별한 의미를 주는 시간 이였습니다. 하염없이, 때론 목숨을 걸고 선조들이 걸었을 만큼은 아니지만 땀에 젖어 약간의 힘듦과 불편함을 느끼며 순교자들의 삶을 만날 때, 그분들이 신앙을 위해 감내해야 했을 고통을 조금이나마 느끼고 더 구체적으로 그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처절한 고통과 죽음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느님을 증거하고 찬양하는 순교자들의 놀라운 신앙의 힘을 좀 더 피부로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홍주의 천한 백정집안의 출신으로 태어나 천주교를 받아들이고 아름다운 행실로 교우들의 찬사를 받았던 황일관 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는 두 개의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에 있고, 다른 하나는 죽은 후에 있는 게 분명합니다.” 인간적인 차별과 멸시를 고스란히 받으며 사는 지상에서 이미 천국을 맛보고 살고 있는 것 같은 성인들을 보며 ‘나는 왜 이분들처럼 하느님을 깊게 만나고 지상에서 천국을 맛보며 사는 것 같이 살 수 없는 것인가?’라고 묻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봅니다. 이번 순례에서 만난 순교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무명 순교자들은 과거 당시에 정말 가진 것 없는 가난한 이들 이였습니다. 철저한 신분제 안에서 사회의 부정의와 불의를 온몸으로 받아 안고 살았을 그들은 ‘평등과 나눔’을 말하는 천주교를 통해 하느님을 만나 이상세계를 꿈꾸었고, 천국에서 누릴만한 큰 기쁨과 해방감을 이미 맛보고 삶에서 살고 전하며 살았기에 기꺼이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에 비해 저는 하느님을 굳이 찾지 않아도 될 만큼 소유하여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살고 있고, 이 모든 것이 하느님께로 온 것임을 너무 쉽게 잊으며, 과거에 비해 향상된 많은 것들, 예를 들어 민주주의, 높아진 인권, 평등, 자유 등의 삶에서 누리고 있는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다시 잘 기억하고 되새기면서 잘 기억하며 지내길 바라봅니다. 저에게 주어진 것들이 늘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이 아니며 모두 하느님에게서 온 것임을,

또한 나에게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에 주변의 누군가는 여러 가지 이유의 가난함으로 고통 속에 있음을. 그들의 어려움을 연대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임을. 하느님의 자비하심 없이는 저 또한 한없이 가난한 존재임을.

마지막으로 제 삶이 다블뤼 주교님의 좌우명 ‘예수님을 가진 자가 모든 것을 가진 자다.’과 같이 되어지길 청하며 나지막하게 읊조려 봅니다.

이신자 로사 수녀님의 선종 소식



수녀님은 1964년에 수녀원에 입회하여, 2015년 3월 19일 금경축을 지내시고, 성프란치스코 관구집 공동체에서 생활하시다가 7월 11일 하느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수녀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해주시고,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루카 1,38)



자동 이체를 원하시는 분은 도장, 통장,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아래 은행을 방문하셔서 이체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금주 : 재) 성 프란치스코 수녀회

국민은행 362737-04-000395 농협 100072-51-060834

* 후원금이 아닌 미사예물이나 봉헌금은 다음 계좌로 보내주세요.

농협 352-1499-1313-23 예금주 : 김계숙

후원회 : 010-2821-8174 수녀원 : 02-865-8174

E-Mail : fmmssp@hanmail.net